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전문강사료는 기타소득일까... 중소세 개인별 유의사항 신고검증 받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초 종합소득세 대상 중 115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발송했으며, 사전안내 가운데 '개인별 유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신고검증에 착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전안내 자료는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으로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외 성실신고에 도움 되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이 있을 경우 해당 대리인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 측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 해주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로 우수 중소기업제품 할인... 15일부터 할인쇼핑몰 기획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가전, 건강기능식품,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할인판매되고 있다.

15~23일에는 꽃바구니 기획전, 오는 31일까지 리뷰 이벤트가 열린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은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른 일종의 마일리지로 직장인, 사업자라면 세금포인트가 꾸준히 누적된다.

자신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경우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평균 13억원 넘어... 평균 양도세 3억원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천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천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천689억원)보다 1조9천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천261억원으로 평균 3억1천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천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